

임원 후보 출마의 변(辯)

저는 1995년 프로에 입문해 2004년까지 투어프로골퍼로 활동했고 은퇴 후에도 J골프 해설위원으로서 프로그램을 맡아 방송 일을 하는 등 골프채를 처음 잡았던 16세 소녀 시절부터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인 지금 이 날까지 골프와 함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

투어활동과 방송을 통한 20년 가까운 시간은 저에게 우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. 무엇보다 저는 모든 회원들이 현재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투어활동은 물론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.

우선 투어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겐 경기 외적인 요인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경기 그 자체에 집중하여 골프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분들께 최상의 경기를 보여 줄 수 있도록, 그리고 레슨활동을 주로 하는 회원들에게는 레슨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골퍼 스스로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골프 저변 확대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현재 우리 프로골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큰 힘인 갤러리 분들이 경기를 관람함에 있어 선수들과 보다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고, 선수들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장기적으로는 프로골퍼들이 첫 입문 시 여러 진로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지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택한 길에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, 그리고 은퇴 후에는 선수 때와 다르지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협회원 모두의 힘을 합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지만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후배분들이 계시기에 저 스스로가 아닌 우리 협회원 모두를 믿고 그리고 보다 많은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렇게 입후보하고자 합니다.

작성자 : 한 소 영